

중국이 유황을 빨아들이고 있다!

중국 비료공장의 폭발적 증가로 국내 유황가격 가파른 상승세

유황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.

중국 비료시장이 성수기를 맞이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유황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.

2002년 기준으로 평균 톤당 25달러를 유지하던 유황가격이 2003년 3월 현재 50-60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다. 국내에서는 Spot로 거래되지는 않지만 중국지역의 Spot 가격은 80-90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당분간 유황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비료업계에서는 중국의 유황수요 증가를 “스핀지로 빨아들이듯이 유황을 빨아들이고 있다”로 표현하고 있어 중국시장 팽창속도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.

유황 수출입현황 (단위: 1000달러, 1000MT)

구 분	수 입		수 출	
	수입액	수입량	수출액	수출량
2000	9,200	217	12,042	280
2001	5,640	203	5,611	240
2002	4,892	153	5,080	162

국내에서는 SK, LG-Caltex정유 등이 유황 70만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비료용 수요가 약 65만톤으로 가장 크다. 비료용은 남해화학이 40만톤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동부한농화학 14만톤, 카프로락탐 10만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. <전선미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4/03>